

세계속의 한국 경제 : 과제와 전망*

사공 일(司空 壹)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세계 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

우리 길벗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정치 지도자들과 세계 굴지의 기업 경영인들이 대거 참여한 ‘아시안 리더십’ 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하시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저명한 경제학자로서 항상 세계의 석학, 이코노미스트 및 정치 지도자들과 세계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시고 계십니다. 여러 모로 바쁘신 데도 월간 『우리 길벗』 독자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박사님의 최근 근황과 현재 몸담고 계시는 세계경제연구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은 1993년 창립된 비영리 법인체로서 세계 변화의 흐름을 정치 지도자들과 정부정책담당자들 그리고 기업의 톱매니지먼트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적 차원과 기업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 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석학, 정계, 업계, 언론계의 리더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그것이 한국에 어떤 함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각종 특별 강연회와 국제 세미나 등을 개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이미 미국의 세계적 경제예측 전문가인 알렌 사이나이(Allen Sinai)박사의 미국과 세계경제전망에 관한 특별 강연이 있었고, 일본 도쿄대의 한국경제전문가인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교수의 ‘일본의 시각에서 본 한국 경제의 활로’ 라는 초청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IMF의 수석 부총재이

* 이 글은 월간 ‘우리 길벗’ (발행인: 서영훈) 2005/4, 제7호에 게재된 인터뷰 내용입니다.

며 세계적 석학인 앤 크루거(Anne O. Krueger)박사의 특별강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요 국제회의 참석, 국내 주요 대학과 각종 단체 초청 특강, 신문기고 그리고 고대 석좌교수로써 후학(後學)들을 만나는 등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길벗 박사님께서는 일찌기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정보화 사회의 급진전 등 세계가 급변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제 주체들은 대내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 사고에 젖어 이에 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최근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사공일 사실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단어가 보편화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정보화 관련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빠른 속도로 하나의 ‘지구촌(global village)화’ 되어가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촌 시대에는 기업의 입지(立地)가 자유로워진다는 중요한 함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만 있으면 그리로 몰리고 또 기업하기 불리한 여건이 있으면 쉽게 다른 곳으로 입지를 옮기게 됩니다. 자본과 기술, 새로운 경영기법과 다양한 마케팅 채널 등을 가진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경쟁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세계화 시대입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는 ‘일자리’가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라는 중요한 함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계화’라는 큰 흐름의 함축성만 잘 이해해도 국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시대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와 일자리 유치를 위해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러한 세계화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중국은 그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작년 일 년 간 610억불에 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수많은 일자리의 창출과 함께 국가발전의 기틀을 쌓았습니다. 그 정반대의 경우가 세계화 추세를 외면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굶주리고 있는 북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드는 것이 세계화 시대에 잘 사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국민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길벗 냉전 붕괴 후 지구촌 전체 차원의 의사 결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그러한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최근 이해 당사국간의 대립으로 그 진전이 다소 답보(踏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FTA 등 지

역경제협력의 움직임은 보다 활발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 교역의 자유화 움직임, 지역 FTA 추진 등 세계 경제 질서 재편에 대해 우리의 대응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공일 무엇보다 먼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작은 나라일수록 다자주의 체제가 더 유리합니다. 다자주의 체제 하에서는 뜻을 같이 하는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WTO체제 강화와 그 유지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늘날 우리가 소득 1만 불 수준까지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WTO의 전신인 GATT(무역과 관세와 관한 일반협정)체제 하의 세계적 자유무역여건이 있었고 이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는 다자주의체제의 강화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지역주의와 쌍무주의적인 체제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자주의체제의 강화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요국들과의 FTA 체결 등을 통해 세계적 지역주의적 추세에도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 경제 재부상과 지식 기반 시대의 도래

우리 길벗 최근 동아시아 경제 구도에 있어 중국 경제의 재부상은 그 막대한 흡인력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을 경우 자칫 중국의 변방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중국 경제의 부상이 우리 경제에 함축하는 의미와 우리의 대응 자세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사공일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중국의 성장잠재력이 대단한 나라임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난 2천여 년 동안 세계 전체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의 어느 추계를 보면 청대(淸代)인 1820년의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전체 GDP의 1/3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큰 것입니다. 물론 지금 중국의 GDP는 세계에서 4퍼센트 정도에 불과하지만 현재 보이고 있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나간다면 머지않아 이 지역 뿐 아니라 세계 전체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 함축성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 내 중국 경제는 그 규모면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따라잡고, 6-7년 후엔 독일, 2010년대에는 일본 그리고 2020년대에 가서는 미국까지 따라잡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중국이 풀어야 할 과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조화, 연안과 내륙 지역 국민 간에 벌어진 소득 격차의 해소,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국영 은행의 대량 부실 채권 정리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다함께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심지가 굳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일인당 국민소득 4~5천 불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속도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중국의 재부상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서울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반 거리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2시간 반 만에 못 가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보면 서울과 우리나라 전체는 중국의 중심부에 있는 것과 같은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이 지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여건만 마련한다면 중국을 겨냥한 세계적 기업들이 일 자리를 갖고 우리나라로 모여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세계적 기업들과 손을 잡고 함께 일한다면 우리나라는 금융과 물류는 물론이며 의료·보건 분야나 R&D와 교육 허브(hub)도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는 세계적 기업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은 이들 세계적 기업들과의 경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5천년 역사를 통해 우리가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앞선 것은 기껏해야 지난 50여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재부상이 갖고 올 “이웃효과”를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앞서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또 중국의 큰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릴 때입니다.

교육 개혁과 노사 관계의 변화

우리 길벗 최근 한국 경제는 성장 단계가 초기적 단계에서 후기적 성장 단계로 이행해 나가는 전환점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구조의 급속한 노령화, 그에 따른 소비 및 투자 행태와 사회 환경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사회적으로는 지식과 기술, 개인의 창의력이 가장 중요시되는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빠른 진전은 경제 주체가 이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실업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박사님께서서는 평소 우리나라가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교육 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선진국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 개혁 전략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공일 오늘날 우리는 지식(knowledge)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적 자원인 지식 기반 경제 시대(knowledge-based economic era)에 살고 있습니다. 앨빈 토플러 (Alvin Toffler)

식으로 인류 역사를 살펴본다면 제1의 물결시대라 일컬어지는 농경화 시대에는 넓은 국토와 좋은 기후 조건의 나라가 경쟁우위를 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제2의 물결시대, 즉 산업화 시대에는 자본 축적여력이 많은 나라가 경쟁우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역시 우리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3의 물결 시대인 지식기반 경제시대를 맞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유리한 국제 경쟁고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식’이란 결국 사람의 몸속에 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곧 이 지식기반 경제시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열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너무 배우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나라 즉 교육에 관한한 초과 수요가 문제가 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교육 개혁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교육을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오늘날의 한국은 자식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에 우리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개혁에 범국가적 에너지를 하루속히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 ‘교육 대통령’을 뽑자고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지식 기반 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개개인의 창의력을 최대한 살려주고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남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지혜’를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우리의 교육개혁은 초중등 교육의 질적 개선과 대학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평생교육체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교육개혁도 재원 확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의 5퍼센트 정도의 교육재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국민 모두가 지불하고 있는 사교육비가 이것에 못지않게 크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자를 잘 활용한다면 공교육의 개혁에 필요한 재원은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개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우리국민 거의 모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추진하기가 무엇보다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교육개혁이야말로 우리사회 지도층 모두와 정부와 정치권의 강한 리더십 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교육에 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길벗 최근 한국 경제는 지표상 소비 회복 징후가 나타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기업 투자 회복이 미흡한 등 아직은 경기 회복을 확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박사님께서서는 지난 2002년 우리 경기가 호조를 보이던 시절 소비 진작 위주의 경제 정책 운용의 위험성을 이미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주된 배경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 처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공일 우선 환란(換亂) 이후 우리 경제의 궤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경제는 1997년 11월에 환란을 맞아 1998년엔 6.7%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행히 빠른 속도로 회복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계적 IT 붐에 따른 미국을 위시한 경제 호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잘 활용하여 1999년에 9.5%, 2000년에는 8.5%라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미국이 경기 불황을 겪었던 해로 우리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우던 대만, 홍콩, 싱가포르 경제는 제자리 걸음 내지 마이너스 2%이상 저조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진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시피 이 시기에 신용 카드 붐이 일었고 가계 부채가 사상유래 없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금융기관의 부실문제로 연결되었고 거의 모든 가계가 빚 갚을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2003년 2/4분기부터는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었고, 그러한 현상이 오늘에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민간 소비가 차츰 늘어나는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소비는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날 것이 내다보일 때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기업투자가 활성화 된다면 수출호조와 함께 경제성장의 주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설비투자는 최근 들어 조금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GDP대비 설비투자가 아직도 10%이하의 낮은 수준에 있으니 문제입니다. 현재 낮은 금리 수준이나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동성 공급 등을 고려할 때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비경제적 측면의 기업투자여건을 개선해나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정치가 안정되어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우선순위를 경제에 둔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경제정책 조정 기능의 강화와 생산적이고 협조적인 노사관계의 확립, 필요이상의 각종 정부규제와 간섭을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길벗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경기 회복에 있어 노사 관계를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으며 일본, 독일 등의 최근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가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노사 관계의 정립은 경기 회복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견해를 들려 주십시오.

사공일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곳에 기업투자가 활성화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천국이라 불려 온 프랑스나 독일의 좌파 정부마저 노사관계개선과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

고 있는 것입니다. 노사관계 개선은 결국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와 사 양측이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근로자들도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노조의 설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사측과 협력해야 하며 사측도 투명경영을 통한 신뢰기반구축으로 근로자들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큰 노사문제 없이 경영을 잘 하고 있는 어느 외국기업 대표는 모든 공을 “투명경영”에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여 우리의 눈길을 끈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 결성률은 12~13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많은 외국기업인들은 우리나라를 강성 노조가 지배적인 나라라는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사가 힘을 합쳐 하루 속히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해야 하겠습니다.

21세기 리더십

우리 길벗 우리 사회에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각종 이익 집단간 갈등으로 원활한 정책 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원로로서 경제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치 리더십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직면한 국민들의 의식 구조 전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박사님의 향후 주요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사공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나 지경학적(地經學的) 측면에서 볼 때, 세계적 열강들의 틈새에 자리하고 있어 태생적으로 국제적 안목 있는 리더십을 항상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현재 세계경제질서변화의 세 가지 큰 흐름, 즉 가속화 되고 있는 세계화추세,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도래, 그리고 중국의 재부상의 참 뜻과 그 함축성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리더십 발휘를 위해 세계 속에서 우리 위상과 앞으로의 세계 정세변화를 내다볼 수 있게 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대국민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종 이해집단이 참가하는 건전한 토론문화를 길러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TV를 위시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올바른 교육개혁을 통해 다음세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 자질과 미래지향적 사고를 길러 주는 것도 큰 과제라 하겠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당시 뉴욕 시장이었던 루돌프 줄리아니(Rudolph Giuliani)가 쓴 『리더십』이란 책에 “리더십은 그냥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칠 수도, 배울 수도, 스스로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국제경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교육개혁과 우리나라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중국 재부상의 효과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발휘 될 때 우리나라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일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정의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기업 차원의 올바른 전략수립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길벗 여쭙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제한된 시간이라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 부탁의 말씀

세계경제연구원은 법인회원(구좌당 3백만원) 및 개인회원(구좌당 20만원)의 지원으로 국가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공공재(public goods)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연구원의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법인과 개인 회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직 세계 경제연구원 후원회에 가입하지 않은 주변의 기관과 인사들에게 후원회 가입을 권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후원회 가입문의 : 세계경제연구원

전 화 : 02-551-3334/7

E-mail : igenet@igent.com

http://www.igenet.com

세계경제연구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